



살류주

salluju
mook magazine

살류주 세번째 이야기, 여성사이

- 누가 그들에게 여성을 대변하라 했는가 / 장정임
- 함께 합시다, 호주제 폐지운동 / 고은광순
- 어설폰 페미니스트의 좌불안석 / 화담

■ 생생보고서

여성단체, 여성사이, 동료사이, 고부사이, 모녀사이
자매사이, 동서사이, 친구사이, 전업주부

■ 여성연대를 위한 내 생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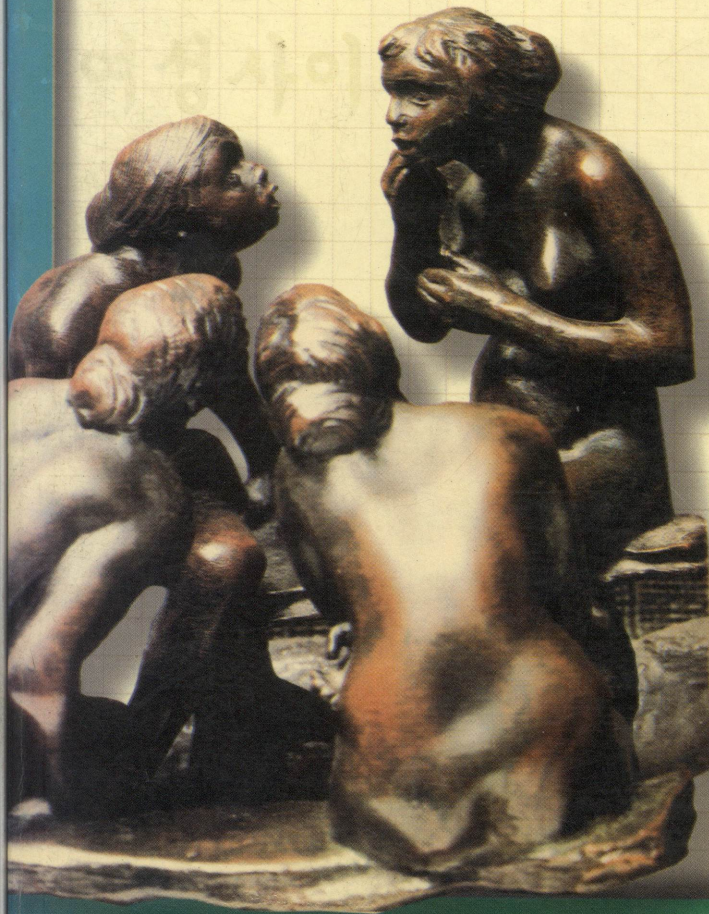
■ 특 집

문학권력과 페미니즘
〈여성시〉논의에서의 안티 페미니즘적
위험에 대하여 / 노혜경
창비와 문학권력 / 이명원
왜 권위주의 청산인가 / 이덕화
신춘문예 유감 / 정문제
중앙문단의 들러리가 되려는 사람들 / 정문순

■ 살류주 시단

■ 독자 시단

인물과
사상사



Contents

차례

〈기획의 글〉 살류쥬 세번째를 발간하며 06

누가 그들에게 여성을 대변하라 했는가 | 편집주간 장정임 | 08

함께 합시다 | 호주제 폐지운동
사이비 마초와의 전쟁이라고라고라? | 고은광순 | 28

이런 남자가 좋다 / 어설픈 페미니스트의 좌불안석 | 화 담 | 34

〈생생보고서〉

여성단체 /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| 박소정 | 40

여성사이 / 사이버 여성연대 | 감자순 | 52

동료사이 / 유리천장 아래서 | 이숙희 | 60

고부사이 / 며느리와 시어머니, 편할 권리 있는 며느리?? | 이한다 | 70

모녀사이 /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어머니를 놓으며 | 릴리스 | 74

/ 희생을 거부한 어머니 | 김사라 | 82

/ 강 저편에서 | 박덕선 | 87

/ 든든하고 살가운 딸 | 장다솜 | 98

/ 아낌없이 받는 딸 | 백은경 | 106

자매사이 / 깨물어도 덜 아픈 손가락 | 정을순 | 112

/ 큰언니는 대들보 | 박을녀 | 117

동서사이 / 동서혈전 | 하여간 | 128

/ 제도의 의무 속에서 만날 때 | 세일러문 | 138

/ 우리사이 동서사이 | 이말레 | 146

친구사이 / 오랜 친구의 따듯함 | 장진숙 | 152

전업주부 / 아줌마의 부러움과 시샘 | 광현숙 | 156

여성사이를 훈훈하게 / 여성 연대를 위한 내 생각 166



〈특집〉

기획글 / 문학권력과 페미니즘 175

『여성시(詩)』논의에서의 안티 페미니즘적 위험에 대하여 | 노혜경 | 178

창비와 문학권력(백낙청 선생께 드리는 글) | 이명원 | 192

왜 권위주의 청산인가 | 이덕화 | 204

신춘문예 유감(저널리즘적 대중성에 침몰되는 인간들) | 정문제 | 214

중앙문단의 틀러리가 되려는 사람들 | 정문순 | 222

〈살류주 시단〉

무덤하나 없는 꽃 / 결혼을 노래함 / 마녀처럼 / 슬픔 그리고 평화 / 순수
| 장정임 | 242

봄 바람 / 임종 / 비와 번데기 | 광현숙 | 250

사마귀 / 다 환한 세상 / 가시연꽃 / 어두운 유혹 / 흰 호랑나비
| 모순덕 | 253

빛 가락지 / 어머니 다시 혼자 / 여자 고양이 / 노란 예수님 / 큰언니
| 박덕선 | 258

말 / 육교 위에서 | 손지윤 | 263

빗살무늬 토기 / 마스크가 덮어 씌워진 여자 | 백호경 | 265

방아깨비 소녀 / 세상이 다 알때까지 | 이경자 | 267

콘도르를 기다리며 / 그 손은 나를 피해 달아났다 / 설탕으로 만든 남자 /
내가아는 마고할미 전설 / 나에게 문명은 | 하선영 | 269

〈독자 시단〉

살림연수 / 플라스틱 여자 | 이미경 | 275

〈편집부에 온 편지〉 278

